

로봇이 일하던 공장을 넘어, 우리가 사는 공간으로

뉴로메카 Life & Tech 사업 소개

지난 7월, 뉴로메카는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차세대 스마트 빌딩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제조 현장의 자동화를 이끌어온 뉴로메카가 '공간'이라는 새로운 무대로 발을 넓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협약을 계기로 사내에 신설된 조직이 바로 Life & Tech 사업부입니다. 최근 사내 타운홀 미팅에서 Life&Tech 박상욱 디렉터가 이 사업부를 소개했는데, 그 내용을 바탕으로 Life & Tech가 어떤 일을 하는 팀이고 뉴로메카와는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왜 '삶(生活)'인가

Life & Tech라는 이름은 다소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출발점은 단순합니다. '생활(生活)'은 사람이 일정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하루 중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10시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14시간이라면, 결국 우리 삶의 대부분은 '집'과 '빌딩'이라는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서비스와 기술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는 이 공간에서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Life & Tech 사업부는 시작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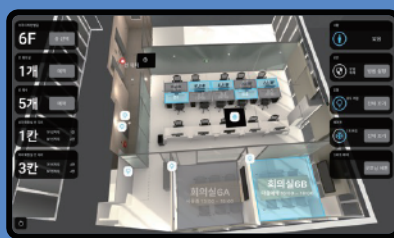
복잡한 스위치

스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바인드 키오스크

각종 기기, 컨트롤러, 공간 예약 등의
위치/상태 확인을 위한
번거로움 없이 Kiosk에서 즉시 파악 및 제어



바인드 원격 통합 매니저

빌딩 운영 현황 및 에너지 절감 관리
이벤트 알림 확인 등
실시간 현황과 동일한 View로 원격 관리 및 제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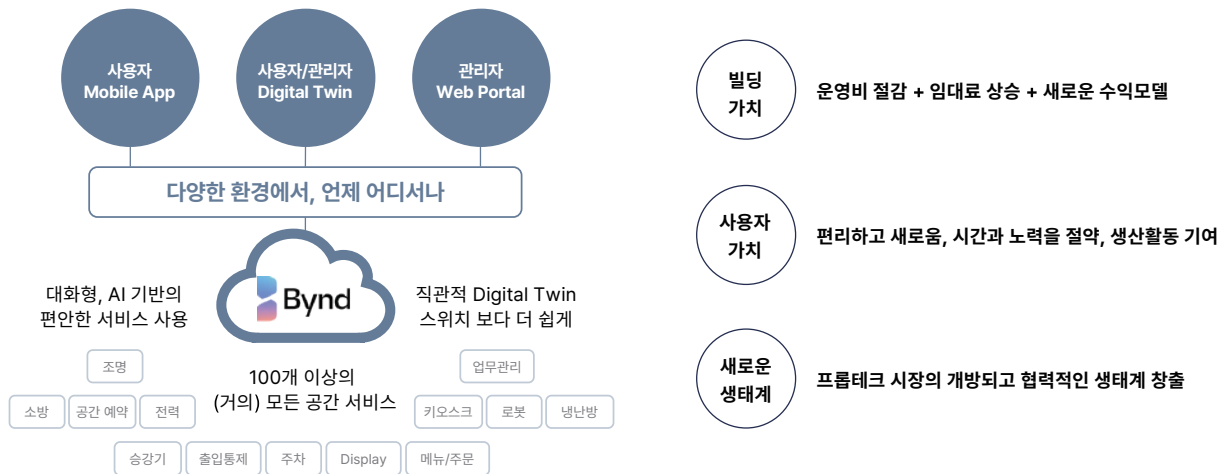


Life & Tech 사업부가 출발한 문제의식 — '생활'의 재정의 (타운홀 발표자료)

그리고 이 공간을 실제로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파트너는 다름 아닌 건설사입니다. 삼성물산과의 협업이 자연스러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Bynd, 공간을 다루는 AI 플랫폼

삼성물산이 선보인 Bynd는 빌딩의 모든 기기와 서비스를 클라우드로 연결해, 스마트폰과 PC, 키오스크 등 다양한 환경에서 디지털 트윈과 AI 기술로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공간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조명, 냉난방, 출입, 주차, 업무관리 등 100개가 넘는 서비스를 스위치를 누르는 것보다 쉽게, 대화형 AI 비서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nd Platform Overview (타운홀 발표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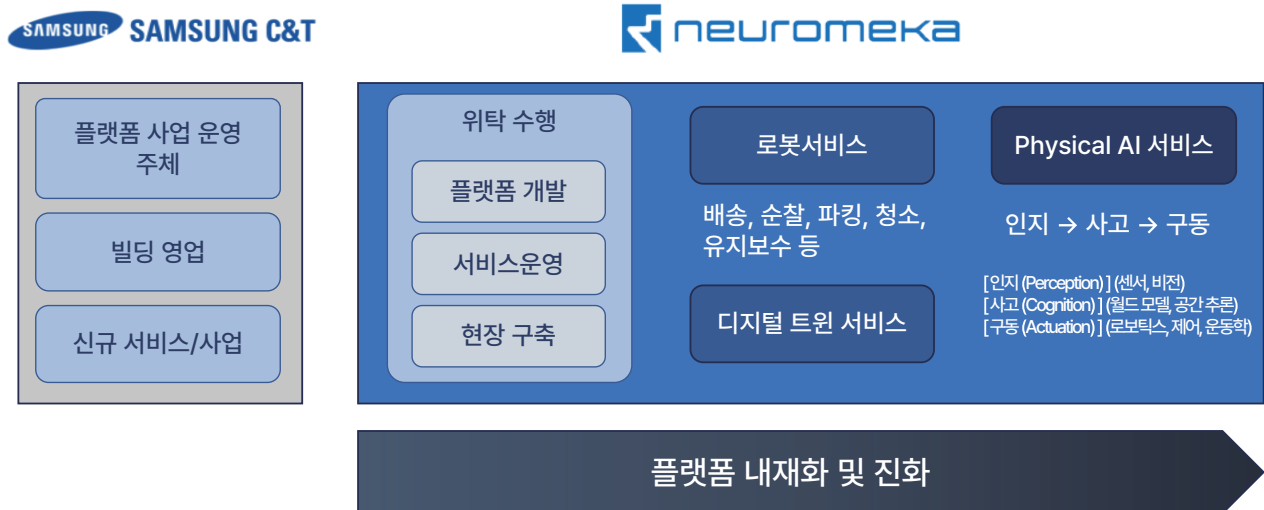
실제로 채팅 한 번으로 회의실을 예약하고, 다음 주 팀원들이 모두 가능한 시간을 찾고, 방문객에게 자동으로 안내 메시지를 보내는 식입니다. 사람이 직접 하나하나 확인하던 절차가 AI 비서와의 대화 몇 마디로 끝나는 셈입니다.

The image shows a smartphone displaying the Bynd AI Assistant interface. The screen is divided into sections for '대화형 AI 비서' (Interactive AI Assistant) and '회의실 예약' (Meeting Room Booking). A chat window shows a conversation about booking a meeting room. To the right, two speech bubbles contain the following text: '다음주 중 우리 팀원들 모두 미팅 가능한 일정 찾아줘' (Find a schedule where all our team members can meet next week) and '다음주 화요일 오후 3시 가능한 회의실 예약해드릴까요?' (Would you like me to book a meeting room for next Tuesday at 3 PM?). Below the phone, the text 'AI Assistant' is displayed, followed by '사용자간 메신저, Chat 기반 메뉴 주문 회의실 예약 AI비서 서비스' (User-to-user messaging, Chat-based menu ordering, meeting room booking AI assistant service).

이 플랫폼은 빌딩 운영비 절감과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을 노리는 동시에, 프롭테크 시장에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지향합니다. 즉 Bynd는 처음부터 외부 파트너와 함께 확장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된 플랫폼입니다.

뉴로메카가 더할 수 있는 것

여기서 뉴로메카의 역할이 분명해집니다. Bynd가 공간을 인지하고 연결하는 디지털 레이어를 맡는다면, 뉴로메카는 그 공간 안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몸'을 맡습니다. 협동로봇과 자율이동로봇(AMR), 그리고 산업용 휴머노이드로 대표되는 로봇 제어·운영 기술이 배송, 순찰, 파킹, 청소, 유지보수 같은 빌딩 내 물리적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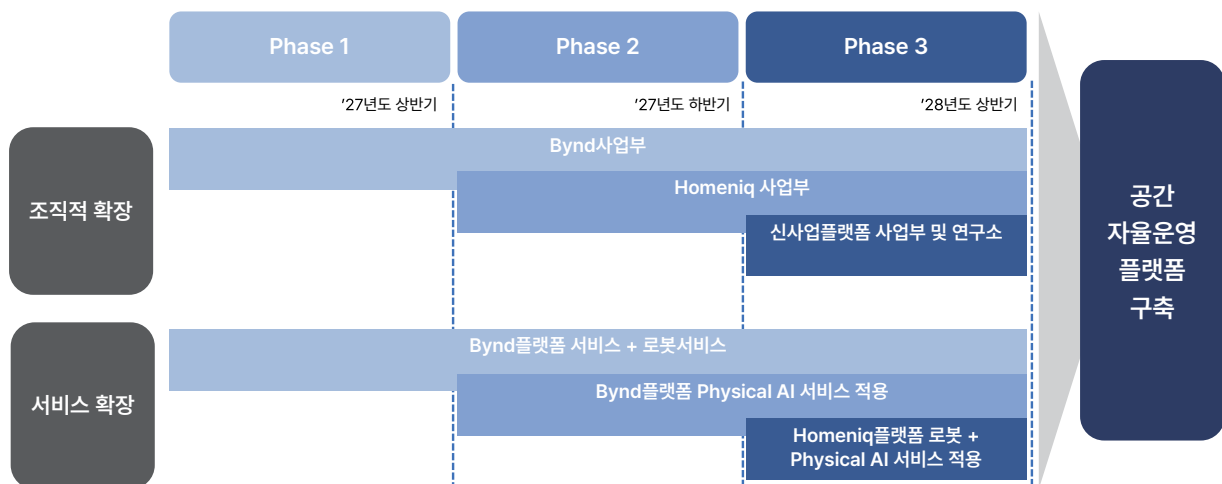


Bynd 사업의 역할 분담 — 삼성물산과 뉴로메카 (타운홀 발표자료)

실제로 삼성물산이 플랫폼 개발과 서비스 운영, 빌딩 영업을 맡는 동안, 인지(센서·비전)에서 사고(공간 추론)를 거쳐 구동(로보틱스·제어)으로 이어지는 로봇 서비스의 축은 뉴로메카가 위탁 수행하는 구조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제조 현장에서 쌓아온 로봇 제어 역량이 빌딩이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실질적인 가치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제조를 넘어, 공간으로

Life & Tech 사업부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Bynd 플랫폼 서비스에 로봇 서비스를 접목하고, 나아가 Physical AI 서비스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람이 살고 일하는 모든 공간에 자율운영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것이 중장기 방향입니다.



Life & Tech 사업부 향후 추진 방향 — 조직·서비스 확장 로드맵 (타운홀 발표자료)

뉴로메카에게 이번 협력은 단순한 신규 고객사 확보를 넘어, 그동안 제조 자동화에 집중해온 사업 영역을 '생활 공간'이라는 훨씬 넓은 시장으로 확장하는 의미 있는 전환점입니다. 박종훈 뉴로메카 대표는 이번 협약을 두고 “로봇 공급을 넘어 Physical AI 시대를 함께 준비하는 전략적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뉴로메카의 Physical AI 기술을 제조 현장에서 스마트빌딩까지 확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장의 자동화 기술이 우리가 살고 일하는 공간의 일상으로 스며드는 과정, Life & Tech 사업부가 그 첫걸음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뉴로메카 경영전략실 박종석 디렉터 -